

쿠키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BBC와 파트너사는 쿠키, 웹브라우저 데이터 수집과 같은 기술을 통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온라인 경험과 맞춤 콘텐츠, 광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아니요,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BBC** NEWS 코리아

뉴스 비디오 다운로드 TOP 뉴스

# 북한: 노래와 춤은 북한의 사상 통제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이윤녕  
BBC 코리아

2020년 7월 14일 오후 1:38



GETTY IMAGES

영국의 민족음악학자 키스 하워드 교수는 "북한은 나라 전체가

## 주요뉴스

프랑스, '코로나19 영웅' 보건 의료 종사자 임금 인상키로 6시간 전

WHO '코로나19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나라 너무 많아' 2020년 7월 14일

IMF 때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결정 배경은? 7시간 전

## 이 시간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 마쳐... 그의 죽음이 남긴 논란

하나의 극장처럼 작동한다"고 분석했다

2년 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는 훈풍이 불었다. 남북평화협력을 기원하며 평양에서 남북합동공연도 개최됐다. 예술단 교류는 남북 관계 해빙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지만 북한에서 노래와 춤은 체제 선전의 대표적인 도구로 꼽힌다.

'한국음악 전도사'로 알려진 영국의 민족음악학자 키스 하워드(Keith Howard) 교수는 최근 내놓은 신간 '위대한 지도자를 위한 노래들(영문명: Songs for 'Great Leaders')에서 북한이 노래와 춤을 체제 선전과 사상 통제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상세히 담았다.

### 북한에서 인기 있는 한국 가요 TOP 3

### 남북, 공연예술 통해 '화음' 낼 수 있을까?

### '정치 선전' 위해 납북된 문화 예술계 인사들

오랜 기간 한국 전통음악을 연구해온 하워드 교수는 국악계를 비롯해 음악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명한 인물이다. 1981년 한국을 처음 방문한 그는 사물놀이를 배우기도 했다. 90년대 초반부터 한국을 자주 오가며 한국 음악과 관련한 각종 기고문을 비롯해 수많은 서적을 출간했고, 1992년에는 북한을 방문한 적도 있다.

현재는 런던 동양·아프리카 연구소에 몸담고 있는 키스 하워드 교수를 BBC 코리아가 직접 인터뷰했다.

## '북한은 나라 전체가 하나의 극장'

Q. 북한이 노래와 율동을 통치 수단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제 강화에 사용되고 있나

음악을 통한 사상 통제의 역사는 작곡가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던 과거

은?

2020년 7월 13일



'홍콩 떠나겠다' 보안법 이후  
탈 홍콩을 준비하는 사람들

2020년 7월 12일



드디어 공식 석상에 마스크  
쓴 트럼프 대통령

2020년 7월 12일

틱톡 사용 막히나? 한국도 인도, 미국에 이어 행정처분 검토

2020년 7월 9일

호주 멜버른이 확진자 급증으로 다시 봉쇄됐다

러시아 혁명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노래에 들어간 가사는 이념이 됐다.

북한은 나라 전체가 하나의 극장처럼 움직인다. 평양도 마찬가지다. 북한 사람들은 정해진 방향으로 행동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공연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다. 때문에 나라 전체를 극장이라고 본다면 그 핵심에 노래가 있는 것이고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 음악에는 기악 연주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곡의 가사를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곡들은 매스게임 등에 활용된다. 노래가 연주되고 곡을 따라 부르면서 그 안에 이념도 함께 스며드는 것이다. 노래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노래에서 이념이 사라졌다. 과거 외부 세상에서 포크송이 주목을 받으면서 북한의 두 악단을 통해 최신 유행가가 등장했던 시기가 있다. 바로 '보천보 전자악단'과 '왕재산 경음악단'이다. 노래들은 김일성 집권 초기의 과거로 다시 돌아갔다. 마치 노래 속 이념은 사라진 듯 보였다.

그런데 1995년 말, 김일성의 첫번째 부인 김정숙에 대한 노래가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했다.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잘 알다시피 김정숙은 김정일의 친모다. 갑자기 김정일이 중요한 인물로 떠오른 것이다. 노래의 등장을 따라가다 보면 김정일의 탄생과 군대를 동시에 축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악단 정치'다.

결국 북한의 노래를 들여다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을 알 수 있다. 김정일이 군대 지휘를 마친 후 새롭게 등장한 노래에는 그가 명백한 지도자이고 누구도 그에 대적할 수 없다는 걸 암시했다. 북한의 '노동신문'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또다른 사례는 2009년 김정일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등장한 노래다. '발자국'이라는 노래다. 누구인지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발자국

2020년 7월 9일

## 노트르담 대성당, 결국 현대식 아닌 19세기 원형 그대로 복원한다

2020년 7월 10일

## 유능한 사원이 무능한 관리자가 되는 이유

2020년 7월 12일

##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신체 기관

2020년 7월 11일

## 생각보다 의미가 큰 '약한 유대'

2020년 7월 5일

을 따라간다는 내용이다. 새로운 지도자가 현재 지도자의 뒤를 따라갈 것이라는 가사다. 그리고 4-5개월이 지난 뒤, 갑자기 김정은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르는 노래를 통해 아직 언급되지 않은 어떤 인물이 차기 지도자가 될 거라는 걸 짐작했을 것이다. 즉 노래를 통해 차기 지도자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한 셈이다.

KETIH HOWARD

하워드 교수는 그의 최근 저서에서 북한이 노래와 춤을 체제 선전과 사상 통제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상세히 담았다

## TOP 뉴스

- 1 200년 역사의 '조니 워커' 내년부터 종이 병에 담킨다
- 2 WHO '코로나19 잘 못된 방향으로 가는 나라 너무 많아'
- 3 미국 플로리다, 하루에 코로나19 1만 5299명 확진... 신기록 세워
- 4 '셋 셀 때까지 해'... 아이들이 그린 말상처
- 5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 마쳐... 그의 죽음에 남긴 논란은?
- 6 노래와 춤은 북한의 사상 통제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 7 '인간적인 사과 받고 싶었습니다' 박원순

# 익숙한 민요 수집...이념 주입을 위한 개사

Q. 북한이 새로운 노래를 만들 때 사람들을 시골로 보내 기존의 민속 음악이나 시를 기록해 오도록 했다고 들었다. 남북 분단 이후, 북한 지도자들은 예술을 어떤 식으로 재구성했는가.

당시 북한은 중국을 바라보고 있었고 중국은 소련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련과 북한은 초기 10년 사회적으로 우호 관계를 갖고 있었고 많은 부분이 연관되어 있었다. 소련의 영향을 받은 정책도 많았다.

그런데 김일성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은 중국을 찾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김일성 때의 주요 각색가들이나 연설 작성자 등은 초기 10년 간 중국을 방문했다. 그러면서 많은 중국의 이념들도 유입됐는데 이것도 사실 소련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이념이 들어오면서 북한의 행동 방식도 사회주의 종주국인 중국이나 소련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이뤄졌다.

방대한 민요 수집 작업 역시 이미 1920년에서 1930년대에 소련이 했던 일이다. 작곡가들이 민요를 활용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는 국가 차원의 음악을 만들어 내는 한 방법으로 쓰였다. 북한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작업을 했던 셈이다. 1950년대 중반, 작곡가들이 민요를 먼저 수집했는데 초기 수집본은 분량이 비교적 적었고, 1955년에서 1960년대에는 제법 많은 분량의 수집이 이뤄졌다.

이렇게 모인 노래들은 서양 악기로 연주될 수 있게 재창조 작업을 거쳤다. 노래 가사들도 이념적으로 견실하게 꾸며졌다. 예를 들어 '달빛 속에서 님을 기다리며'라는 가사를 '모란봉 정상에서 김일성을 기다리며'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념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개사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고소인 입장 발표

8 IMF 때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배경은?

9 성접대 동영상 인물 맞는데도 '무죄' 선고 받은 김학익

마지막 업데이트일  
2019년 11월 26일

10 미국 '남중국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 주장은 불법'

GETTY IMAGES

하워드 교수는 북한 예술악단의 형태는 현대화됐지만 노래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형식은 변해도 내용은 그대로'

**Q. 북한 노래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상당히 많은 특징이 있다. 노래가 나온 시기를 살펴보면 간단한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서구화됐다는 것이다. 온음계, 장조, 단조 등 같은 것이다. 그리고 리듬이 간결하다. 당시 남한 노래와는 리듬이 달랐다. 1960년대까지 점차 일반화된 창법도 생겼다. 판소리나 북한 남부 지역의 민요와 비슷해졌는데 훨씬 더 단순해지고 가벼워졌다. 물론 여기에도 주체 사상이 들어있다.

80-90년대 '보천보 전자악단'과 '왕재산 경음악단'이 연주하는 유행가의 경우에는 또다른 변화가 보이는데 한마디로 당국의 승인을 받은 노래들이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의 팝음악은 자유로운 반항의 음악이었다.

북한의 초기 두 악단을 살펴보면 '왕재산 경음악단'이 연주하는 유행가는 서울의 나이트클럽 음악에 가까웠다. 색소폰 연주자나 키보드 연주자가 있는 식이다. '보천보 전자악단'은 일렉트로닉 기타 등 훨씬 더 전자음을 많이 사용했다. 이 부분이 약간 다른 점이다.

이렇게 현대화의 과정은 있었지만 노래는 그대로였다. 기본적인 노래의 구조나 가사는 항상 검열을 거치기 때문에 노래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모란봉악단도 마찬가지다. 형식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그룹이었지만 이내 사라졌다. 그들이 다시 등장했을 때는 훨씬 더 보수적인 느낌이었다. 화장도 멀어지고 치마도 덜 짧아졌다.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경음악 대신 항상 가사가 있는 노래를 불렀다. 검열이 있는 한 노래의 근본은 항상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하워드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시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식의 문화와 음악 감상 트렌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도시 엘리트층의 음악 소비 트렌드 변화

**Q.** 모란봉악단은 북한의 '현대판 걸그룹'으로 불리며 K-POP과도 비슷한 형식을 취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근본적인 큰 변화는 없었다고 보는가.

노래에 있어서는 그렇다. 모란봉악단의 노래를 들어보면 가사가 완전히

이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초반 3년은 의상이나 화장법이 중국과 비슷했다. 그러나 다시 등장했을 때는 '조선옷'이라고 불리는 한복을 입고 나타났고 화장이 열어졌다.

모란봉 이전 2008년, 2009년, 2010년에는 일종의 실험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은하수악단도 그랬다. 이후 2000년대 들어 김정은은 새로운 형식의 예술단 제작에 나섰다. 2000년대 초반 사람들이 모이는 북한의 나이트클럽에 대한 보고서를 찾았는데, 도시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식의 문화와 음악 감상 트렌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모란봉악단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했다고 본다.

DVD 플레이어나 노래방 기계를 통해 몰래 들여갔든 어쨌든 당시 북한에 K-POP은 들어가 있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그들이 북한에 있을 당시 K-POP을 알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 혁명가곡 벗어나 새로운 음악 제작 원해

**Q. 김정일 집권기와 김정은 집권기에 가장 눈에 띄는 음악적 변화는 무엇인가.**

우선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이 해왔던 일을 확장시켜 나갔다. 김정은이 김정일보다 더 추구했던 건 지도자의 가족에 대한 것이다. 아마도 자신의 배경 때문에 김정은은 항상 이들 집단에 확신을 주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군에 확신을 주기 위해 애써온 것과는 조금 다르다. 김정은이 내세웠던 건 그가 북한을 굳건하게 통치할 것이란 점이었다. 실제로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암살되거나 숙청당했다.

모란봉악단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김정은 내외가 항상 모란봉 콘서트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등장 초반부터 늘 사진에 함께 나와 있다. 우리는 모란봉악단이 김정은 취향의 그룹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혁명가곡 같

은 낡은 형식을 탈피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이들 음악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나 확실한 건 김정은이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 새로운 형태의 문화 제작을 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평양의 부유층과 권력층에 대한 책임 의식이 있었고 더 이상 김정일 시대 정도의 강력한 이념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 북한 사람들은 반역을 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을 음악이나 춤을 통해 과하게 통제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GETTY IMAGES

북한 집단체조의 율동은 일부러 어렵게 짜여 있다는 것이 하워드 교수의 지적이다

## 어렵게 고안된 율동...전체주의 이념

**Q.** 또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집단체조에 대한 것이다. 북한이 집단체조를 일부러 어렵게 구성한다고 했는데 왜 그런가.

먼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추는 일반 집단 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김일성 주석 생일 때 추는 단체춤이 그것이다. 이런 춤은 과거 독일 나치 때는 물론 중국에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주목하는 건 매우 고된 연습을 요구하는 정교한 '집단체 조'다. 이건 고도의 스킬이 필요한 복잡한 율동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의 매스게임에서 쓰이는 춤이다. 배우는 율동이 복잡할수록 사람들은 지도자에 대한 더 큰 신뢰를 쏟게 된다.

모든 율동은 매우 정교하고 어렵게 짜여 있다. 한 사람이 동작 실수를 하게 되면 팀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 개개인 모두가 전체의 중요한 일부분이고 한 명이라도 잘못되면 전체는 붕괴하는 식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전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서 국가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보여줘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어린이들도 엄청난 시간의 리허설을 참고 견뎌야 한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페이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매스게임 준비를 위한 수천 페이지의 교본을 익히게 된다. 역시 하나라도 잘못되면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다. 때문에 어린이들도 국가와 북한 체제에 대한 완벽한 신뢰와 충성을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지 않다면 동작을 훨씬 간단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 관련 기사 더 보기

---

**북한에서 인기 있는 한국 가요 TOP 3**

2018년 4월 9일

**남북, 공연예술 통해 '화음' 낼 수 있을까?**

2018년 2월 1일